

【특 집】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시인 범주와 거류형 시인의 만주 인식

전월매*

┃ 차 례 ┃

1. 들어가며
2. 재만조선시인의 범주
3. 거류형 시인의 만주 인식
 - 1) 망명과 이민 공간-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 2) 개념적 상징 공간-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
4. 나오며

국문초록

기존연구의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는 기준 없이 운동주, 이학성, 함형수, 송철리, 천청송, 윤해영 등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서 태어나 거류 목적으로 만주로 건너 가서 일정기간을 체류하면서 조국이 광복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거류형 시인들을 재만조선시인 범주에 추가 포괄시켰다. 그들로는 김조규, 유치환, 백석, 박팔양, 김달진, 서정주, 백석, 이육사 등이 있다. 거류형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나타난 만주는 중층적이면서도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서정주에게 만주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 뿐인 텅 빈 공간으로, 유치환에게는 거칠고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광야이자 절명지이고 절도로, 김조규에게는 식민지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 장안대학교 강사

현장과 공간으로, 이육사에게는 조국 광복을 꿈꾸며 기상을 드높이는 혼련 터전이자 사상 실천지로, 박팔양과 윤해영에게는 오죽협화와 낙토만주로, 유치환, 김달진, 윤해영에게는 고토의 공간으로, 백석에게는 자연과 합일하고 여러 종족이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적 신시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주제어: 재만조선인, 만주공간, 만주인식, 다의적 의미

1. 들어가며

일제강점기 만주 땅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문학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중국조선족문학’¹⁾, ‘중국조선민족문학’²⁾, ‘해방전조선족문학’³⁾, ‘만주조선인문학’⁴⁾, ‘재만조선인문학’⁵⁾, ‘재중조선인문학’⁶⁾, ‘재만한국문학’⁷⁾, ‘간도에서의 이민문학’⁸⁾, ‘망명문학’⁹⁾, ‘대륙문학’¹⁰⁾, ‘동포문학’ 등 여러 갈래의 개념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전 존중의 입장에서 ‘재만조선인문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왜냐하면 만주라는 확정된 지역에 조선인들이

1) 권철, 2000, 『중국조선족문학(상)』, 연변대학출판사.

김경훈, 2006, 『중국조선족시문학연구』, 학술정보.

2) 채성미, 2003, 『일제강점기 중국조선민족 시문학의 원형이미지 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논문.

3) 장춘식, 2004,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연구』, 민족출판사.

4) 오양호, 1996,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5) 김호웅, 1998,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전월매, 2009,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6) 윤윤진, 2006, 『재중조선인 문학연구』, 신성출판사.

7) 채훈, 1990, 『일제강점기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8)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9) 이명재, 1991,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 중앙대학교출판부.

10) 김열규, 허세옥, 오양호, 채훈, 1992, 『대륙문학 다시 읽는다』, 대륙연구소출판부.

가꿔낸 조선인 문학이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시문학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 대해서는 아직 편협한 편이다.¹¹⁾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 대한 기준이 없이 윤동주, 천청송, 송철리, 윤해영, 이육, 김조규, 유치환, 조학래, 이포영 등만을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여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 대해 논의해보며 그 중 만주에 거류 목적으로 얼마간 체류하였다가 한반도에 돌아온 거류형 시인들의 시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만주라는 문학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만주라는 지리적 공간의 성격과 한국문학사상의 의의를 규명해본다.

2. 재만조선시인의 범주

한 통계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만주에 이민을 갔거나 만주를 다녀갔거나 만주를 체험화한 작가나 시인들의 총 수자는 137명¹²⁾에 이른다. 그중 시인의 숫자는 30을 상회하는데 여기에는 김조규, 김달진, 김복원, 김동환, 김기림, 남승경, 윤동주, 박팔양, 이육, 이육사, 이용악, 이수향, 이복명, 이찬, 이포영, 유치환, 윤해영, 백석, 함형수, 심연수, 신상빈, 천청송, 송철리, 모운숙, 임학수, 노천명, 손소희, 조학래, 장기선, 채정린 등이 포함한다.

11) 김호웅의 앞의 책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문학연구』에서는 시문학에서 천청송, 송철리, 윤해영, 윤동주, 이육만을 거론하였고 권철의 앞의 책 『중국조선족문학(상)』에서는 시문학에서 윤동주, 김조규, 이육, 함형수, 유치환, 송철리, 천청송 등 시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규익의 『해방전 만주지역의 우리 시인들의 시문학』에서는 송철리, 이육, 함형수, 조학래, 김조규, 천청송, 이포영 등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12) 이는 권철의 통계이다. 김호웅, 1998, 『재만조선인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32쪽에서 재인용.

1945년 8월 15일 식민지제국 일본이 붕괴되면서 제국적 질서의 해체와 조국 광복을 맞아 수많은 조선 이주민들의 대거 한반도로 귀환이 이루어졌다. 이들 중 일부 작가들은 만주 땅에 정착하여 개척민, 선구자로 광복 후에는 중국조선족이란 중국의 소수민족의 일원으로 뿌리내렸다. 여기에 만주 이민을 간 후예로 윤동주, 이민하여 정착한 시인으로는 심연수, 이옥, 송철리 등을 재만조선시인에 포함시키는데 이의가 없다.

문제는 만주에서 한동안 거주하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조국이 광복되면서 한반도로 돌아간 시인들인 김조규, 김달진, 백석, 서정주, 유치환, 윤희영, 함형수 등이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 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우선 재만조선인 문학의 특수성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만주 지역의 조선인 이주가 한반도에서 한민족 혹은 조선 민족으로 형성된 후에 근대에 이르러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적 형태로서 만주에 흘러든 유이민사라면 재만조선인 문학도 한반도 기성작가들의 이주에 의해 형성, 구축된 문학이다. 염상섭, 안수길, 김조규 등은 이미 조선작가로서의 자격을 갖고 거류목적으로 이주했으며 만주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재만조선인 문단의 형성, 발전에 기여를 하였다. 만주체류기간 이들의 작품은 만주와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서 재만조선인사회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들이 만주에서 일정기간 거류하면서 생활했다는 점, 만주문단에서 활동하면서 만주와 관련된 시를 창작했다는 점 등의 만주 거주목적, 거주시간, 행적으로 미루어 그들을 재만조선작가 범주에 편입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는 또한 소위 속인주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속인주의는 작가의 혈통, 국적을 우선으로 한다. 만주에서 문단 활동을 한 작가들은 대개가 한반도에서 이민을 갔거나 혹은 이민을 간 사람들의 후예들이기에 한민족의 혈통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당시 재만조선시인들은 두만강, 압록강 건너의 한반도가 자기 나라라고 알고 있었다.

이러한 재만조선인 문학의 특수성, 속인주의의 혈통과 국적으로 윤동주, 심연수, 이육, 김조규, 유치환 등등의 시인들은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시인이자 한국근대시인의 범주에 모두 포괄되는 이중신분의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재만조선인 문학 뿐만 아니라 한국근대문학의 범주에도 동시에 포괄되어야 한다. 이는 현재 중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조선족시인들과는 대조적이다. 왜냐하면 속지주의 개념으로 현재 중국국적의 중국조선족시인 김철, 남영전 등은 중국문학의 소수민족시인이자 한국의 해외동포시인이라면 윤동주, 심연수는 재만조선시인이자 한국근대시인이자 중국문학의 시인에는 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윤동주, 이육, 심연수 뿐만 아니라 김조규, 김달진, 백석, 박팔양, 유치환, 윤해영, 함형수, 서정주, 이육사 등을 재만조선시인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한다.

3. 거류형 시인의 만주 인식

거류(居留)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곳에 임시로 머물러 살거나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삶을 이룬다. 영어로는 residence, residing이다. 여기에서 거류형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만주로 가서 몇 개월 내지 1년 혹은 몇 년을 임시로 체류하면서 조국이 광복되거나 그 전에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시인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김조규, 김달진, 박팔양, 백석, 서정주, 유치환, 윤해영, 이육사 등 시인들이 포함된다.

거류형의 만주인식은 크게 망명과 이민공간과 개념적 상징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망명과 이민공간은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등을 다루고 개념적 상징공간에서는 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 등을 다룬다.

1) 망명과 이민 공간-서정주, 유치환, 김조규

가.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텅 빈’ 공간-서정주

미당 서정주는 1939년 10월¹³⁾에 직장을 구해 만주로 이주한다. 만주로 가기 전에 그는 결혼을 하고 처자를 거느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고창 군청 경리과 임시고원, 사법서사의 견습수업, ‘노가대’판 三仙組 결성 등을 하기도 했으나 맘에 맞지 않았다. 무료하게 직업 없이 지내다가 직장을 찾아 돈 벌러 만주를 간 것이다.

만주로 건너가서 좋은 직장을 잡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그리 쉽지는 않았다. 그는 연길 局子街의 만주 양곡 주식회사 간도 출장소 경리과에 한 자리를 얻어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용정 출장소에 옮겨져 그곳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일본인 소장과 맞지 않아 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서정주의 <만주 일기>¹⁴⁾에서는 그가 만주에서의 항상 의식주에 시달려

13) 김학동 외, 2005, 『서정주연구』 새문사. 730쪽에서는 서정주가 ‘1940년을 1개월 정도 남겨놓고 (중략) 만주로 갔다’ 즉 1939년 12월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이 서정주 <만주일기>의 날짜를 추정해보면 1939년 11월 1일 전에 만주로 간 것으로 그의 만주 체류기간은 3개월이 아닌 5개월 정도로 보인다.

14) 1939년 11월 1일 下宿料와빚을습하면 百圓은잇어야한다. 또 外套와內衣等도 사야만한다. 또 汪滿을가면 月給을타기까지 누가 나를밧고먹이여주나 最小限 二百圓은 잇어야 할텐데 어서케하나 아버지한테선 두달이넘도록 無一張消息이다. 그러케여러번이나 편지와電報를 하였건만은 低劣하게도 血書까지 써보냈건마는 어머니에게서 二十圓돈이 누이의편지와가치 왓습썬이다. 妻한테서도 요새는 消息이업다. 지난달初에 어서돈버러서 升海사당을 사주라는 집에서는 銅錢한넛 갖다쓸생각말라는 封套가온뒤엔 도무지 잠잠하다.’- 서정주, 1941, <滿洲日記 中> 전문, 매일신보.

1939년 11월 7일 ‘아무 奇別도업다....中國人飲食店에가서胡酒한리食과 만두한그릇을

집에서까지 돈을 부쳐올 정도의 경제난, 타국에서의 언어의 불 소통, ‘외국인’으로서의 소외감, 적막함과 고독함, 더불어 가족과 고향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다. 그는 만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5개월 만에 그곳 생활을 접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짐을 꾸린다. 그때가 1940년 봄이었다.

아무튼 너무나 춥고 고통스러웠던 만주에서의 생활은 25세인 그에게 <만주에서>와 같은 시를 남기게 하였다.

참 이것은 너무 많은 하늘입니다 내가 달린들 어테를 가겠읍니까. 紅布와같이 미치기는 쉬웁습니다 뗏千年을, 오- 뗏千年을 혼자서 놓고온 사람들이겠읍니까.

... ..

바로 말하면 하르뻘市와같은것은 없었습니다. 자네도 나도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무슨 처음의 복숭아꽃 내음새도 말소리도 病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서정주, <滿洲에서> 부분, 『인문평론』, 1941.2

사먹었다. 마지막一圓이다. 마지막一圓으로는 언제나胡酒와 만두를 살일.’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

1939년 11월 6일 ‘기막히는일이다. 하로에나는 뗏마되식이나 말올하는가 이러케 한一年만지내면 말하는습관을 아조이져버릴것만갓다. 그건조혼일일까?’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3> 부분, 매일신보.

1939년 11월 7일胡人이무얼보고 그러는지나보고 막 “니야나야”한다. 醉한김에 좀火가나서 “고노야로썸마니야다...고노야로!”하고 소리를 하여보았다. 胡人들은어안이병병하야 그양무섯고 나도事實은 좀우수었다 來日도기다릴까?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39년 11월 12일 ‘就職이고 무엇이고 다아거쫄말이다. 아무도 나를 그러케는식혀주지안는것이다. 내게서는 벌서무슨그런냄새가 나는것이안일까 步行할때는 나를쫄는 고향소리가 四方에서 들린다 이놈아 이속모를놈아 바보갓은놈아外國人의 外國人아 가거라地球밖으로...宇宙밖그로! 일테면 썩上座로 찬란한 구름近傍으로 가갓습니다. 테테가갓습니다.’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1939년 11월 7일 ‘아무 奇跡도없다. 참지웁고아무라도막 나를함부루해도 조올것만갓다.’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4> 전문, 매일신보.

‘참 이것은 너무많은 하늘입니다’는 바로 끝없이 무한정 넓디넓고 막막한 만주벌판에 지평선 끝이 안 보이니 하늘이 꼭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시인은 하늘을 형상화하여 경제난으로 큰 기대를 품고 만주로 간 자신이 도처에서 부딪치게 되는 허무감과 절망감을 표현하였다. 계속 이어지는 ‘내가 달린 들 어데를 가겠습니까’는 이 역시 내가 아무리 달려봐도 똑같은 하늘에 똑같은 벌판, 내가 아무리 달리고 노력을 해봐도 허사했다는 표현이다. 처음 이런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접하는 사람은 ‘紅布와같이 미치기는 쉬웁습니다.’ 즉 붉은 천을 보고 마구 덩비는 소처럼 미치기 쉽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처음 홀로 만주로 간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 절망 등으로 미칠 지경으로 되기가 쉽다는 것이다.

‘바로 말하면 하르빈市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는 만주에 많은 기대를 품고 간 서정주가 특히는 하르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얼빈은 재정 러시아의 중동철도부속지를 중심으로 개발된 계획도시이다. 1903년 중동철도 전선이 개통된 시기를 전후하여 철도 부속지가 확대되면서 러시아인, 중국인 등 인구가 급증했고 따라서 하얼빈도 거대 국제도시로 형성되어 나갔다. 그러나 서정주의 눈에 안겨오는 하르빈은 국제도시라는 생각과는 달리 일자리 제대로 없고 경제난 해결하기 어려운 기대일 곳 없는 ‘텅 빈 공간뿐’¹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절망적인 광야와 허무의자-유치환

靑馬 柳致環이 만주로 건너간 시기는 1940년 3월¹⁶⁾이다. 그가 간 곳은

15) 김윤식은 「우리 문학의 만주체험-염상섭의 경우」(하) (『소설문학』, 1986.7)에서 만주를 ‘국내에서나 일본에서 배우고 체험한 작가의 안목에서 보면 만주국은 하늘뿐이고 텅 빈 곳으로 파악’하였는데 필자는 서정주의 경우도 만주를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뿐인 텅 빈’ 공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

16) 유치환의 만주이주시기에 관해서는 유치환의 『구름에 그린다』(경남도서출판, 2007)에서는 ‘1941년 첫봄 나의 첫 시집인 『청마시초』가 그동안의 畏友 素雲 兄의 주선으로

북만주인 濱江省 延壽縣 維新區 2號였다. 연수현에는 유치환의 형 동량 유치진의 처가에서 소유한 농장이 있었는데 그는 형의 부탁을 받고 그 농장을 관리하였다.

유치환이 만주로 가게 된 원인을 그의 산문집 『구름에 그린다』(1959)에서는 ‘자의 피난’, 어쩔 수 없는 ‘탈출’이라 했지만 이 후일담들은 조국이 광복된 후에 적은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형 유치진이 조선에서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면서 거대한 경제적 부를 이루었기에 유치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굳이 친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형의 부탁으로 농장관리로 갔을 것이다.

유치환이 만주에서 생활한 시간은 1940년 봄에서 1945년 6월까지 5년 3개월 정도, 만주에서 창작한 작품은 50여 편이다. 유치환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인위적인 것 하나 없는 거칠고 황막하고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광야였고 절명지였으며 절도였다. 그러나 한편 시인은 이를 철학적 사유가 도달하는 허무의지로서 극복하고자 하였다.

興安嶺 가까운 北邊의
이 광막한 벌판 끝에 와서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 위에
오늘은 이레째 暗愁의 비 내리고
내 망난이에 본받아

나오게 되자 우연한 기회를 얻어 나는 달갑게 내게 따른 권술들을 이끌고 북만주로 건너갔던 것이다’로 되어있고 그 외 문덕수의 『청마 유치환 평전』(시문학사, 2004)에서는 1940년 3월에 가권을 거느리고 북만주로 간 것으로, 박해수의 「유치환 시 연구」(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1996)에서도 1940년 봄으로, 김훈겸의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일제말기 김조규, 유치환의 시를 중심으로」(『한국언어문화』제28집, 2005)에서는 1940년 4월로 되어있다. 통영의 청마 문학관 유치환 연보에 따르면 1940년 3월 통영협성상업학교 교사를 사임하고 만주 민강성 연수현으로 이주하여 농장 관리 및 정미소 경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통영 문학관의 연보에 따라 1940년 3월로 표기하도록 한다.

화투장을 뒤치고
담배를 눌러 꺼도
마음은 속으로 끝없이 울리노니
아아 이는 다시 나를 過失함이러노
이미 온갖을 저버리고
사람도 나도 접어주지 않으려는 이 자학의 길에
내 열번 패망의 인생을 버려도 좋으련만
아아 이 悔悟의 앓음을 어디메 號泣할 곳 없어
말없이 자리를 일어나와 문을 열고 서면
나의 탈주할 사념의 하늘도 보이지 않고
정차장도 이백 리 밖
암담한 진창한 갇힌 철벽 같은 절망의 광야

—유치환 <광야에 와서> 전문, 『인문평론』, 1940.7

시적자아가 조선에서 “이미 온갖 저버리고/ 사람도 나도 접어주지 않으려는 자학의 길에”서 떠나온 곳은 바로 만주의 “홍안령 가까운 북변의/ 광막한 별판 끝”이었다. 홍안령은 흑룡강의 가장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바 만주에서도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정거장도 2백리밖에 있는 매우 궁벽한 곳인 것을 봐서는 농장이 있는 연수현이나 혹은 가신촌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7일째 연속 내리는 ‘暗愁의 비’는 여기를 ‘암담한’ ‘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망나니를 본받아 화투장도 뒤치고 담배도 피우고 눌러끄고’ 하지만 ‘죽어도 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은 ‘암담함’과 ‘절망’을 느낀다. 자신의 ‘悔悟의 앓음’을 유일하게 호소하고 싶은 ‘사념의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철벽같은 절망의 광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절망’을 안겨주는 광야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처벌하고자 한 것, 그 의지와 광야의 빈틈없는 어울림, 이것이 바로 이 시가 뛰어난 작품이게 하는 한 요인이다. 17)

비슷한 내용의 시 <絶命地>에서도 ‘고향도 사랑도 회의도 버리고’ 만주로 온 시인은 ‘굳이 立命하려는 길’에 들어선다. ‘굳이 立命하려는 길’이란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재정립해 보겠다는 비원이 서린 각오이다. 그러나 시인에게 다가온 북만주의 세계는 ‘陰雨에 바다처럼 황막히 거칠은’ 광야, 바로 시인이 ‘여기에 소리 없이 죽기로’ 한 ‘絶命地’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만주는 시인의 이상과 포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절망의 곳이었다. 그러나 ‘회환을 오열인양 냇을 쪼아’ 시험하려는 허무의지를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허무의지란 스스로 자신이 밝힌 것처럼 일체의 인간적 감정을 초극하고 냉혹하고 비정한 인간이 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시적 내지 철학적 사유가 도달한 인식으로서 단순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 순수함 내지 순정을 강렬하게 만드는 동력원이다.¹⁸⁾

만주는 유치환에게 있어서 ‘봄이라고 와봐야 봄 같지도 않은 소박하고도 단조롭기도 한 허허벌판’(<생명의 서>재판 서문)이었고 ‘허무 절망한 그곳 광야에 위협을 당하며 알아야’(<생명의 서>초판 서문) 했던 공간이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시월은 ‘죽음의 계절의 시초’(<首>)였다. 까마귀는 성귀에 오구작작 모여서 근심하고 있다. 구름이 꼭 뒤덮여 다시 해조차 볼 수도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쇠로 만든 울짙인 鐵柵인양 황막한 광야를 눌러 막아서 그야말로 갑갑하고 침침하며 황막하기만 하다. 십이월은 “北滿 눈도 안 오고/ 오직 만물의 茄刻하는 흑룡강 말라빠진 바람에 혈벗은”(<首>) 거칠은 계절이었다. 그야말로 “허구한 세월이/ 광야는 외로워 絶島”(<絶島>)이다.

17) 정호웅, 2001,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188쪽.

18) 김종길, 1984, 「청마 유치환론」 『청마 유치환 시 전집』 정음사. 350쪽.

다. 이주민들의 절망적인 삶의 공간-김조규

김조규는 1938년경¹⁹⁾에 만주로 건너갔다. 그 경위는 시 <북행열차>에 고스란히 나타나있다. “안개 짙은 밤 / 나는 그늘진 나의 청춘을 안고 / 북행열차에 실려 /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 / 산 속을 기어 / 해안을 달음질쳐 / 북관천리.....//”, “오라는 글발도 없고 /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 밤과 밤을 거듭한 / 追放의 막막한 나그네 길”이라고 적고 있다. 김조규가 고향을 떠난 이유는 일경의 감시를 피해 본인 스스로 고향을 떠나 간도로 피신한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 김조규는 조양천 농업실천학교 영어과 교사로 취임하면서 어문 수업도 하였다. 당시 ‘국어’인 일본어 수업에 한국고전문학을 강의하고 또 자신이 쓴 창작시를 직접 학생들에게 읊어주기도 하였다. 1942년 10월에 『재만조선시인집』을 편찬하여 출간하였고 1943년 가을에는 위만주국 신경에 있던 『만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기자로 일하였다. 1945년 3월경 조선 평남 향리로 돌아온 김조규는 고향에서 8.15광복을 맞이하였다.

19) 김조규가 만주로 건너간 연대에 대해서는 1937년 설, 1938년 설, 1939년 설, 1940년 설이 있다. 조양천제일중학교 校史에는 김조규가 1937년 조양천 농업학교에 부임되어 온 것으로 되어있다. 권철의 「김조규 연보」(『김조규 시전집』, 휴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2), 조양천 농업학교의 졸업생인 시인 설인의 회억 「김조규 선생과 춘향전」, 김경훈의 「김조규의 해방 전 시세계」(『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6 김조규, 윤동주, 리육』, 보고사, 2006), 장춘식의 「김조규의 재만시기 시문학 연구」(『조선-한국언어문학 연구』, 2007) 등에도 모두 1938년으로 보고 있다. 권영진의 「김조규의 시세계-해방이전의 작품을 중심으로」에서는 김조규가 1940-1944년 시기 만주에 머무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희는 「1930-19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 만주 기행시를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회, 2007)에서 “내가 독서회 사건으로 고향으로 떠나 간도로 피신하여 연결현 조양천에서 영어, 역사 교원으로 있던 때가 1939년 6월부터 1944년 3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다. 『단층』은 1937년에 창간되어 1937년 9월 7일에 제2집, 1938년 2월 28일에 제3집, 총 3권으로 폐간되었다. 김조규가 1938년 김이석·김화정·최정의·유항립·양운한 등과 함께 『단층』의 동인으로 활동한 것을 감안한다면 김조규의 만주행은 1938년이 정확하다고 보아진다.

7년간 만주에 체류하면서 김조규는 60여 편의 시를 창작하였다. 김조규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식민지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이고 공간이었다. 이는 그의 시에서 ‘열차(기차)’, ‘대합실’, ‘停車場’, ‘역’ 등의 공간을 가리키는 어휘들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북행열차>, <삼등대합실>, <대두천역에서>, <한 교차역에서>, <연길역 가는 길> 등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근대에 등장한 ‘열차(기차)’, ‘대합실’, ‘停車場’, ‘역’은 떠남과 돌아옴, 이별과 만남을 상징하는 공간들이다. 그러나 김조규의 시에서 이들은 떠남과 이별의 공간이며 이향을 상징한다. ‘눈물의 북쪽 만리 아하하 / 쫓기우는 족속이여’(<三等待合室>), ‘北行列車에 실려 / 도망치듯 고향을 떠났노라’(<北行列車>), ‘제 고장 기름진 땅 누구에게 빼앗기고 / 이리도 멀고 먼 이역 땅 / 두메 막바지에 흘러왔담?//쫓기는 신세라...’(<大肚川驛에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행열차>에서는 車室이 “행복은 문 어구에도 없고/ 불행만 짝 차 숨이 막”히는 이주민들의 ‘한 폭의 생활축도’였다고 하였다. 차안에서의 ‘빈젓을 파고드는 애기의 울음을 멈출 길 없는 어머니’가 있고 ‘북행열차는 더 큰 불행과 슬픔을 싣고/어텐가 자꾸 떠나고 있다.’ 그리고 <삼등대합실>에는 ‘슬픈 석고상처럼 창에 기대어 실신한 듯 창밖을 내다보는 젊은이’가 있다. 이주민들의 피폐한 모습은 <대두천역에서>라는 시에서 더 한층 사실적으로 형상화되어 묘사되었다.

마을도 없는

20) 일제는 객차의 내선 차별과 등급 분리를 제도화하여 급행열차의 경우 조선인과 일본인이 타는 차량과 기차의 칸까지 구분하였다. 만주로 가는 궁핍한 조선인들이 타는 기차는 3등 완행 열차였다. 3등 대합실은 3등 완행열차를 타는 조선인들이 대기해있는 대합실이었다.

산비탈에 서있는 외진 山間驛
하늘엔 눈발이 부연데
待合室은 지친 얼굴들로
가득차 있다

우묵 패운 불
두드러진 뼈
눈동자는 저마다 닥쳐올 운명에
초불처럼 떨고 있으니
貧窮의 한 배속에서 나온 형제들이나
행복이란 손에 한번 쥐어 못본 얼굴들이다

.....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올릴 생각도 없이
흙바닥만 뚜러지게 들여다보는 녀인
눈물 자욱 마르지 않은 걸 보니
오는 길에 애기를 굶어 죽인 게로구나
할머니는 천리길 걸어 아들 면회 갔다가
‘비적’의 어머니라 구두발에 채여
감옥 문간에서 쫓겨났는지요?
먹다 버린 뽕토를 주워 먹는
애야 너는 그렇게도 배가 곱으냐
(중략)

고향은 강 건너 조선땅이지만
흙 한번 밟아보지 못했다는 사람들

- 김조규, <大肚川驛에서> 부분, 『만선일보』, 1941.4

‘大肚川’은 현재의 길림성 東豊현의 속칭이다. 위의 시는 행복이란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불행하기만 한 조선 이주민의 비극적 모습이 생생하게 서사적으로 그려져 있다. 시적화자가 대두천역에서 본 유이민들의 모습은 오는 길에서 애기가 굶어죽어 눈물 자국이 마를 새 없는 여인, 비적으로 몰린

아들을 면회하러 천리 길 걸어왔으나 비적²¹⁾ 어머니라 구두 밭에 채여 감옥 문간에 쫓겨난 할머니, 먹다 버린 뽕또(도시락)를 주어 먹는 아이 등등의 이야기는 조선 이주민의 비극적 실상들이다.

2) 개념적 상징 공간-이육사, 박팔양, 윤해영, 백석

가. 사상 실천지와 항일 의식-이육사

陸史 李源祿(1904~1944)은 1925년 李正基와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이듬해 그와 함께 북경으로 들어갔다. 1926년 22세에 베이징에서 수학하다가 후학기는 광동성 광주 중산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이때 李活이란 이름을 사용하였다. 중산대학에서 반년만 다니다가 1927년 여름에 귀국하였다. 1931년 독립군 자금모집 관계로 만주로 갔으며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奉天으로 김두봉을 찾아가 그곳에서 머물렀다. 봉천에서 尹世胄를 사귀었는데 1932년 9월 천진에서 윤세주로부터 자신이 義烈團員이라는 고백과 함께 ‘朝鮮革命幹部學校’²²⁾에 입교할 것을 제의받았다. 그리고 1932년 9월중순경

21) 일제는 만주국에서 활동하는 항일무장투쟁 단체들을 공식적으로는 강도 집단과 구분하지 않고 ‘匪賊’이라 통칭했는데 내부적으로는 ‘政治匪’, ‘思想匪’(민족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비적들)로 구분하였다. 1937년 만주의 ‘비적’들은 30 만 명(1931)에서 2 만 명으로 급속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공산주의 계열의 항일무장 세력인 ‘共匪’였다. 이정식, 1989, 『만주혁명운동과 통일전선』, 사계절, 281-282쪽.

김조규의 시에서 등장하는 ‘비적’과 ‘통비분자’는 모두 항일무장 투쟁하는 조선인이나 혹은 거기에 협력하는 조선인을 가리킨다.

22) 이 학교의 명칭은 논자에 따라 다르다. 이동영은 ‘朝鮮軍官學校’(1974)로, 강만길은 ‘朝鮮革命幹部學校’(1995)로, 김희곤은 ‘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2000)로, 경철「신문조사」(1934.6.17)에서는 ‘國民政府 軍事委員會 幹部 訓練班 第6隊’로 칭했다. 정우택의「이육사 시에서 북방의식의 의미-호 ‘육사’의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어문연구』제33권 통권125호, 200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2쪽 참조. 본인의 조사에 의하면 국가보훈처(1990)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제8권에서는 ‘朝鮮軍官學校’로, 이육사 문학관의 연보에는 ‘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로 중국 百度사이트에서는 ‘朝鮮革命幹部學校’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국민정부자료에는 ‘조선혁명간부 훈련반’혹은 ‘탕산(湯山) 훈련반’이라 칭하였고 일본정보자료에는 일반적으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조

남경으로 가서 李範奭과 접선하여 그의 안내로 조선혁명 간부학교에 입교하여 6개월의 과정을 수료하고 이듬해 1933년 4월 20일 졸업했다. 그리고 상해를 거쳐 귀국하였다. 1943년(40세)에 북경에 갔다가 모친상으로 귀국하는 도중 일제에게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되어 1944년 1월 16일 북경 감옥에서 생애를 마감하였다.²³⁾

이육사는 1926-27년, 1931-33년, 1936년, 1943년에 광둥, 만주일대, 북경, 남경, 상해 등지에서 활동했다. 그가 정기적으로 중국에 거류한 시간은 광둥성 광주의 중산대학에서 수학한 반년, 남경 조선혁명 간부학교에서 6개월, 합하면 1년이다. 그 외 수차례 대륙 다녀온 시간을 합하면 2년 정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육사의 많은 작품은 중국과 만주 등지를 전전하면서 썼던 만큼 육사의 구국투쟁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중국대륙과 무변장황한 고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대륙들은 北極, 北方, 北海岸, 北海, 북쪽 등 이름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북방의 情調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이육사의 시에서 ‘만주’라는 용어가 한마디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제국주의의 강한 기호적 울림을 동반하는 ‘만주’를 부정하는 그의 민족 의식적 지향을 내다볼 수 있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陸史 이름 또한 육사가 조선혁명간부학교에 다닐 때 사용했던 이름으로서 이는 보안을 위해 중국인으로 위장을 하고 이름도 중국식으로 지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것이다. 李陸史란 이름은 ‘陸’은 ‘大陸’을, ‘史’는 歷史라는 뜻으로 곧 大陸의 歷史를 뜻한다.²⁴⁾ 이는 육사가 꿈꾸었던 革命的

선간부혁명학교’ 혹은 ‘의열단간부학교’로 칭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朝鮮革命幹部學校’ 명칭을 따른다.

23) 국가보훈처, 1990,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 국가보훈처, 220쪽. 김정민 엮음, 『일사의 노래』, 비단길, 2003, 361쪽. 이육사 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264.or.kr> 이육사 생애 연보 참조.

熱情과 결의가 내포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육사의 작품에서 <꽃>과 <광야>는 그가 조선을 떠나 중국 대륙에 와서 쓴 시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야>는 육사가 살아생전에 햇별을 보지 못한 작품이다. <광야>는 혁명가이고 시인인 육사가 “살아 생전 끝까지 갈 무려 가진 심혼의 기록”²⁵⁾이라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데 닭 우는 소리 들렸스라

모든 山脈들이
바다를 戀慕해 휘달릴때도
참아 이곳을 犯하든 못하였으리라

끈임없는 光陰을
부지런한 季節이 피어선 지고
큰 江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나리고
梅花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千古의 뒤에
白馬타고 오는 超人이 있어
이 曠野에서 목노아 부르게하리라

- 이육사, <曠野> 전문, 『自由新聞』, 1945.12.17

24) 김윤식, 1995, 「절명지의 꽃」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52쪽.

25) 김용직, 1995, 「항일저항시의 해석문제-이육사의 <광야>」, 앞의 책, 147쪽.

이 시는 이육사의 대표작으로서 식민지 치하의 민족적 悲運을 소재로 삼아 강렬한 저항의지와 꺼지지 않는 민족정신을 장엄하게 노래하였다. 시적 화자는 천고의 뒤에라도 조국 광복의 날은 꼭 올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냈다. 과연 그 해방의 날은 시인이 일제의 북경 감옥에서 순국한 바로 그 다음해에 찾아왔다. 유치환이 절망적인 광야에서 그 옛날의 기상을 되새기는 ‘흙빛병정’을 연상했다면 이육사는 이 광야에서 승리를 위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연상하면서 혁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나타내었다.

그의 시 <꽃>에서도 조국의 광복을 위해 하루도 쉬임없이 정진하겠다는 결의와 미래의 조국이 해방될 밝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동방도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방울 내리잖는 이때’, ‘북쪽 툄드라에도 찬 새벽’과 같은 적박하고 차갑고 추운 일제치하의 현실의 극한상황에서 화자는 “한바다 북쪽 용솨음치는 곳 / 바람결 따라 타고르는 꽃城”을 위해 ‘내 목숨을 꾸며 쉬임없’이 보내겠다고 하였다.

나. 낙토 만주와 일제 협력-윤해영, 박팔양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친일시를 쓴 대표적인 한국근대 시인으로는 윤해영과 박팔양을 꼽을 수 있다. 박팔양은 만주에 거주하는 8년 기간 내내 친일 기관인 『만선일보』사, 협화회 등에서 고위직 간부로 활약했고 윤해영의 경우 지방 협화회에서 일해 왔으며 그가 쓴 <낙토만주>는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되는 등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윤해영은 <만주 아리랑>, <오랑캐고개>, <해란강>, <아리랑 만주>, <사계>, <밭해고지>, <척토기>, <낙토 만주> 등 일본 제국의 만주 침략으로 세워진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찬양하는 다수의 친일 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낙토 만주>는 만주국에서 정책적으로 널리 보급한 노래이며

<아리랑 만주>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한 『만선일보』의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다.

五色旗 너울너울 樂土滿洲 부른다
百萬의 拓土들이 너도나도 모였네
우리는 이나라의 福을받은 百姓들
希望이 넘치누나 넓은땅에 살으리

松花江 千里언덕 아지랑이 杏花村
江南의 제비들도 봄을따라 왔는데
우리는 이나라의 福을받은 일꾼들
荒蕪地 언덕우에 힘찬광이 두르자

끝없는 地平線에 五穀金波 굽실렁
노래가 들리누나 아리랑도 興겨워
우리는 이나라에 터를뒀는 先驅者
한千年 歲月後에 榮華萬世 빛나리

- 윤해영, <樂土滿洲> 전문, 『半島史話와 樂土滿洲』, 1943

이는 만주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친일서적인 『半島史話와 樂土滿洲』의 제일 마지막 쪽에 실린 가사이다. 이 가사를 보면 만주는 오색기 너울너울 춤추는 ‘낙토’의 땅, 환락의 땅, ‘희망이 넘치’는 ‘넓은 땅’이다. 이 땅에서 ‘백만의 척사’가 모인 제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복을 받은 백성’들이고 ‘이 나라에 터를 뒀은 선구자’들이다. 만주국을 찬미하는 반민족적인 의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박팔양은 1942년 자신이 편찬한 『만주시인집』에 두 편의 시 <계절의 환상>과 <사랑함>을 수록하였는데 모두 친일 성향을 띠고 있다.

아침저녁으로 다니는 나의거리는
 나에게게잇서 한개의그옥한密林이외다
 沈黙하며 걷는 나의무거운 行進속에서
 나는 五色의 꿈과 무지개를 봅니다

白雪이 大同廣場우에 冥想을 발브며
 世紀의 驚異속을 나는 移動합니다
 康德會館은 正히 中世紀의 육중한城郭
 海上[셸딩]은 陸地우의 巨艦이외다.

[쌔스]는 궁둥이를 뒤흔드는 양도야지새
 牧者도업시 툄툄거리며 몰려오가고
 [닉게]는[스마--트]하게 洋裝한 아가씨
 [오리지널]香水 내음새가 물컹 물려듭니다.

大陸의 太陽이 西便하늘우에 眞紅이 될 때
 나는때로 超滿員[쌔스]속에 雜木처럼 佇立하야
 이나라 男女同胞의 體溫과重量을 堪耐하기도 합니다
 窓外에는 建物들이 龍宮처럼 어른거립니다

— 朴八陽, <季節의 幻想> 부분, 『만주시인집』, 1942.9.29

시적화자는 아침저녁으로 다니며 출퇴근하는 거리가 하나의 ‘그옥한 밀림’과도 같다고 하였다. 침묵하며 걷는 행진과도 같은 걸음걸이 속에서 ‘오색의 꿈과 무지개’를 보고 있다. 그 오색의 꿈과 무지개는 무엇일까? 오색은 만주건국의 이념인 오족협화, 오색기로 연상해볼 수 있다. 만주국의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미래를 상상해본 것이다.

‘正히 中世紀의 육중한 城郭’인 康德會館, ‘陸地우의 巨艦’인 海上셸딩, ‘龍宮처럼 어른거리는’ 建物, ‘궁둥이를 뒤흔드는 양도야지새’처럼 ‘牧者도 업시 툄툄거리며 몰려오가고’는 쌔스, ‘오리지널 香水’를 치고 ‘닉게는 스마

— 트하게 洋裝한 아가씨’ 등 이러한 근대화한 도회의 모습은 화자의 눈에 ‘世紀의 驚異’로 비치고 있다. ‘大同廣場’, ‘康德會館’, ‘오색의 꿈과 무지개’, ‘世紀의 驚異’ 등 표현에서는 화자의 현세에 부응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그의 시 <사랑함>에서도 ‘나의 일본—조선과 만주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출표는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한다는 뜻인데 일본에는 조선과 만주가 속해있다는 것이다. 즉 조선은 이미 일본의 식민지이고 만주국도 일제가 세운 정권이니 조선과 만주는 일본에 속한 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일본과 거기에 예속되어 있는 조선과 만주를 옹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다.

다. 고토의 공간

만주가 고구려, 발해의 고토라는 의식은 유치환, 김달진, 윤해영 등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발현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토의식은 찬란하고 황홀했던 옛 터전에 대한 감회와 회고에만 그치고 있다.

이곳 시월은 벌써 죽음의 계절의 시초리노
 까마귀는 성귀에 모여들 근심하고
 다시 天日도 볼 수 없는 한 장 납빛 하늘은
 황막한 광야를 철책인 양 눌러 막아
 아아 북방 이 거대한 鬱暗의 의지는
 娼婦인 양 허무를 안고 나누었나니
 내 스스로 여기에다 버리려는 고독한 사유도
 이렇게 적고 찾을 길 없음이여
 호을로 허물어진 城터에 서건대
 삭풍에 남은 高粱대만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건디어 울고
 한때 騎馬의 흠뻑 병정 있어
 인력이 아닌 듯

묵묵히 서쪽 별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도다

—유치환, <北方 10月> 전문, 『생명의 서』, 1947.

이 시에서 ‘성귀’, ‘허물어진 성터’는 옛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대를 말한다. 광개토대왕 시기 국세는 절정에 달했고 영토 또한 최대로 넓었다. ‘묵묵히 서쪽별 끝으로 향하여 달려가도다’는 표현은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서쪽 별 끝으로 계속 확장해나갔음을 뜻한다. 그리고 ‘騎馬의 흠빛 병정’은 드넓은 광야인 만주벌에서 말 타고 달린 병정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 상태여서 황토빛이 되었음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시인이 서있는 북만주는 그야말로 갑갑하고 침침하며 황막하기만 한 죽음의 계절의 시초이다. 여기에서 시인이 하는 행위라곤 ‘호을로 허물어진 城터’에 서서 “삭풍에 남은 高粱대만 / 갈 데 없는 감정인 양 못 견디어 울”듯이 자신도 우는 것뿐이다.

김달진의 시 <龍井>에서도 자신이 용정에 온 것을 “강남 제비새끼처럼 / 새론 옛고향을 찾아왔거니”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새론 옛고향’이란 옛 고구려 땅을 말하고 있다. “황혼 길거리로 허렁허렁 헤매이는 흰옷자락의 그림자는 / 서른 내 가슴에 허렁허렁 떠오르는 조상네의 그림자”는 용정에서 어쩌다 발견하는 흰옷자락의 그림자로부터 조상네의 그림자를 떠올린 것이다. 이 고장은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곳이고 정도 붙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슬픈 가슴을 달래고자 어디 가서 나 혼자라도 빼주 한잔 마시고 싶다 하였다.

尹海榮의 시 <渤海古址>에서도 시적화자는 ‘五月의 夕陽’이 비치는 ‘渤海 옛터’에 지팡이를 짚고 섰다. 대조영이 세운 찬란했던 발해국은 거짓말같이 저 멀리로 허구하게 사라지고 화려한 ‘六宮’의 자리엔 주춧돌이 댕그러니 남아 있고 왕궁터에는 풀만 무성하다. ‘應靈寺 鐘’이 울러 퍼지고 만백성이 태평성세한 날들을 보낸 지난날의 榮華는 오늘날 懷古와 감회에만 잠기게 한다.

라. 자연친화, 종족화합의 공간과 축제적 신시-백석

백석은 1940년 1월 조선일보사를 그만두고 만주로 옮겨간다. 그는 신경의 舊市街 東三馬路 시영주택 35번지 황 씨 집에 거처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만주 생활을 시작하였다. 백석은 만주국 군무원 경제부에 잠시 근무하다가 측량 보조원, 측량 서기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1945년 해방 후 고향 정주로 돌아온다. 백석이 바라본 만주는 자연친화, 종족화합의 공간이었으며 나아가서는 축제적 신시의 공간이었다.

아득한 넷날에 나는 떠났다
扶餘를 肅愼을 渤海를 女眞을 遼를 金을,
興安嶺을 陰山을 아무우르를 송가리를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그때
자작나무와 익갈나무의 슬피하든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이 불드든 말도 잊지않았다
오로촌의 멧돌을 잡아 나를 잔치해 보내든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떨어나와 울든것도 잊지않았다

—백석, <北方에서—鄭玄雄에게> 부분, 『문장』2권6호, 1940.7

역사적 화자의 목소리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북방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는 백석의 북방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거침없는 시적 어조와 웅대한 서사적 화폭으로 이채를 띤다.

제1연에 보이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등은 북만주에서 흥망을 거듭했던 나라들이다. ‘아득한 넷날’의 만주는 부여, 읍루와 옥저의 땅이던

데로부터 고구려의 영토였으며 그 뒤에는 발해의 영토였던 것으로 우리 조상들의 숨결이 느껴졌던 정서 깊은 곳이었다. 길짐승,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물고기,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북만주 옛터에서 자연과 합일 속에서 평화롭게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과의 친화는 제2연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육지에서 자라는 자작나무와 이깔나무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고 물가에서 자라는 갈대와 장풍이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음은 물론 홍안령 북구 소홍안령에 사는 북통구스계의 한 종족인 ‘오로촌’(Orochon족)과 남방통구스계통의 부족 ‘솔론’ 등이 멧돌(멧돼지의 오자)을 잡아 장도를 축하하고 십리 길을 따라 나와 이별을 슬퍼하던 것을 잊지 않았다고 화자는 말한다. 자연과의 친화는 물론 이웃부족들과도 평화롭게 살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시적화자의 개인적 슬회만이 아니라 민족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을 노래하고 있다.

백석이 발견한 민족의 공동체는 정을 나누며 살고 조상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영원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동체이다. 여러 종족들은 서로간의 투쟁과 대립보다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용함으로써 그리고 자연적인 사랑의 생명력을 서로 나누어주고 가짐으로써 평화스런 세계, 더욱 풍요롭고 강력해진 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는 ‘한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에 의해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종속적으로 되어 지배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여러 소국들이 자치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조화시킨 연방제’²⁶⁾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특유한 정치 철학과 사상-축제적 신시인데 바로 상호이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조화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적 중심지이다.

26) 신범순, 2006, 「축제적 신시와 처용신화의 진승」 『한국근대문학의 정체성』, 2006서울대 강의자료, 16쪽.

이토록 <북방에서>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합일하고 여러 종족이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적 신시의 깊은 의미는 백석의 다른 시 <귀농>에서도 나타난다.

시적화자는 근대적 표준화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測量도 文書도 실증이 나서‘ 집어치우고 정작 잃어버렸던 구체적 삶의 숨결을 ’밭을 老王한테 얻어 귀농하면서 얻는다. 그의 한가하고 편안한 생활과 더불어 그 속의 자연과 사람들도 그 주변 여건 속에서 합일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 또한 흥겹고เบิก하다. “날은 뽕뽕 좋기도 좋은데 / 눈도 녹으며 술렁거리고 버들도 잎트며 수선거리고 / 저한쪽 마을에는 마뚝에 닭개슴생도 들떠들고 / 또 아이어른 행길에 뜰악에 사람도 웅성웅성 흥성거리 / 나는 가슴이 이 무슨흥에 벅차”오른다.

시적화자는 보잘 것 없는 소작인의 처지일망정 수박과 감자를 심고 계다가 까막까치나 두더지, 돌벌기(감자밭에서 뿌리나 줄기를 자르는 해충) 그리고 도적까지도 포용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겠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더불어 땅주인인 노왕과의 관계도 매우 화해롭다. “눈녹이는 발가운데 땅풀리는 발가운데/ 촌부자 老王하고 같이 서서” “아, 老王, 나는 이렇게 생각하노라 / 나는 老王을 보고 웃어말한다” “老王은 팔장을 끼고 이랑을 걸어 / 나는 뒤짐을 지고 고랑을 걸어” “老王은 나귀를 타고 앞에 가고 / 나는 노새를 타고 뒤에 따르고” 지주와 소작인사이의 화해와 융합을 읽을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와 그중 거류형 시인들의 작품에서 나타난 만

주인식을 짚어 보았다.

기존의 재만조선시인의 범주에는 기준없이 윤동주, 이학성, 함형수, 송철리, 천청송, 윤해영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서는 만주에 거류하면서 생활하였고 만주에 관한 시편을 남겼으며 재만조선인문학의 형성과 구축에 이바지한 김조규, 유치환, 백석, 박팔양, 김달진 등을 재만조선시인 범주에 추가 포괄시켰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태어나 거류 목적으로 만주로 가서 일정 기간을 체류하면서 조국이 광복되면서 다시 한반도로 돌아온 거류형 시인들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거주 목적으로 간 서정주와 백석, 항일목적으로 간 이육사 등도 거류형 시인에 포함시켜 그들의 만주인식을 살펴보았다.

서정주의 만주 인식은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하늘뿐인 텅 빈 공간으로 파악하였다. 유치환에게 안겨오는 만주는 거칠고 외롭고 암담하고 절망적인 광야이고 절명지이고 절도였다. 그러나 시인은 철학적인 사유의 허무의지를 보여주었다. 김조규에게 만주는 식민지 이주민들의 비극적인 삶의 현장과 공간이었다.

이육사의 시에서 대륙들은 北極, 北方, 北海岸, 北海, 북쪽 등으로 나타나며 단 한마디의 만주라는 용어가 발현되지 않는다. 시인에게 만주는 일제가 세운 만주국도 아니고 오직 중국 대륙일 뿐이며 조국 광복을 꿈꾸며 기상을 드높이는 훈련 터전, 사상 실천지로서의 만주였다.

박팔양과 윤해영은 만주에 거주하는 8년과 26년 동안 줄곧 친일기관에 종사하여 왔고 그리고 친일 시들을 남겼다. 박팔양은 만주를 고향과 나라로 보았으며 나아가서 만주와 조선을 일본의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윤해영도 오죽협화, 낙토 만주로서의 만주국을 극찬하고 있다.

유치환, 김달진, 윤해영이 바라본 만주가 고구려, 발해의 고토라는 의식은 찬란하고 황홀했던 옛 터전에 대한 감회와 회고에만 그치고 만다. 그러나 백석이 바라보는 만주는 자연과 합일하고 여러 종족이 어울려 화합하는

축제적 신시의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었다.

종합적으로 거류형 시인들의 시작품에서 나타난 만주는 ‘망명과 이민공간’, ‘개념적 상징공간’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중층적으면서도 다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 일제강점기 재만조선거류시인들이 바라본 만주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시작품뿐만 아니라 소설, 기행문, 수필 등을 포함한 문학 작품과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의 연구나 재만중국인시문학, 재만일본인 시문학에 나타난 만주인식 비교연구는 차후 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국가보훈처, 1990,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 제8권, 국가보훈처 권철, 2000, 『중국조선족문학상』, 연변대학출판사
- _____, 2002, 「김조규 연보」 『김조규 시전집』,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 김경훈, 2006, 『중국조선족시문학연구』, 학술정보
- _____, 2006, 「김조규의 해방 전 시세계」 『중국조선민족문학대계 김조규, 운동주, 리옥』, 보고서
- 김윤식, 1995, 「절명지의 꽃」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5, 「절명지의 꽃」 『이육사』, 서강대학교 출판부
- _____, 1986.7, 「우리 문학의 만주체험-염상섭의 경우」 (하), 『소설문학』
- 김종길, 1984, 「청마 유치환론」 『청마 유치환 시 전집』, 정음사
- 김진희, 2007, 「1930-1940년대 해외 기행시의 인식과 구조-임화와 김조규의 일본-만주 기행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한국문학연구회
- 김학동 외, 2005, 『서정주연구』, 새문사
- 김호웅, 1998, 『일제강점기 재만조선인문학연구』, 국학자료원
- 김훈겸, 2005, 「재만 조선인 시문학의 디아스포라적 양상일제말기 김조규, 유치환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제28집
- 문덕수, 2004, 『청마 유치환 평전』, 시문학사
- 서정주, 1941, <滿洲日記 中> 전문, 매일신보
- 신범순, 2006, 「축제적 신사와 처용신화의 전승」 『한국근대문학의 정체성』, 2006 서울대 강의자료
- 오양호, 1988, 『한국문학과 간도』, 문예출판사
- 오양호, 1996, 『일제강점기 만주조선인문학 연구』, 문예출판사
- 유치환, 2007, 『구름에 그린다』, 경남도서출판
- 윤운진, 2006, 『재중조선인 문학연구』, 신성출판사
- 이명재, 1991,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 중앙대학교출판부
- 장춘식, 2004, 『해방전 조선족 이민소설연구』, 민족출판사
- _____, 2007, 「김조규의 재만시기 시문학 연구」 『조선-한국언어문학 연구』
- 전월매, 2009, 『일제강점기 재만 조선인 시에 나타난 만주 인식』,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 정호웅, 2001,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 채성미, 2003, 『일제강점기 중국조선민족 시문학의 원형이미지 연구』, 연변대학 박사학위논문
- 채훈, 1990, 『일제강점기재만한국문학연구』, 깊은샘

■ 中文摘要 ■

日帝侵占期在满朝鲜诗人的范畴和移住诗人的满洲认识

以往的在满朝鲜诗人范畴的研究只包括了在满洲出生的尹东柱，在满洲生长定居的沈连洙、李旭等诗人。但本文包括了从韩半岛移住到满洲，在满洲住到韩半岛被解放，再回到韩半岛的诗人。这里包括柳致环、徐廷柱、金朝奎、朴八阳、尹海荣、金达镇、白石等移住诗人。本文针对这些移住诗人进行了对满洲的认识。他们的满洲认识分为亡命和生存的生活空间和概念性的象征空间。